

초·중등 연계와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실과(기술·가정)교과의 '가정생활' 영역 차기 교육과정 개발 방안

전세경*¹⁾

공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The plan for development of subsequent curriculum based on the section
'family life'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from
elementary and secondary courses and key competence.

Jeon, Sekyung*¹⁾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Practical Arts,**

Abstract

This study is a discussion about specific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subsequent curriculum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based on two issues ; developing curriculum which is 'connecting elementary-secondary course' and 'based on key competence'.

Specific Study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in the aspect of home economics,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connection between elementary-secondary courses, and in the process of curriculum development, we explored implicit problems through strategies that come out from elementary-secondary courses.

Second, we search what the key competence is in terms of home economics, and the meaning of developing curriculum based on the key competence. For this, we examine the meaning of development of subject matters curriculum based on key competence and the conditions and tasks for developing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based on key competence.

1) 교신저자: Jeon, Sekyung, 27 Woongjin-ro, Gongju, Chungnam,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l: 041-850-1693, Fax: 041-850-1690, E-mail: jeonsk@gjue.ac.kr

2) 이 연구는 2014년 공주교육대학교 자유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ird, on the basis of discussion we explore the way to realize these two issues, already mentioned, into development of subsequent curriculum for home economics. For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academic interaction between home economic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ourses unifying the names of the subject, systematic understanding about development of curriculum based on key competence, finding strategies for appealing the subject, and practical instances.

Through this study, we expect more active interaction between home economics from elementary and secondary courses and academic discussion for development of curriculum.

Key words: curriculum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connecting elementary-secondary course, based on key competence

I. 서론

국가 교육과정 개발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를 보면,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적 요구와 원칙 중 하나는 ‘핵심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이며, 또 다른 하나는 7차 이후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골격으로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초·중등 연계’로 여겨진다. 이는 2009개정에 따른 각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이전 이루어진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연구나 정책연구 등에서 꾸준히 강조(So, et al, 2010) 되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총론과 교과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연구들(Lee, et al, 2014a, 2014b)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이제까지 교육과정과는 달리 개발의 기본 관점에 대한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후자는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기술·가정과도 서로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초·중등 연계’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두 쟁점을 바탕으로 실과(기술·가정)교과에서도 어떠한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과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가정과의 입장에서 보면 초등과의 교과명칭의 상이함과 기술과의 병합된 구조 속에서 실과와 기술·가정과의 초·중등 연계라든가, 핵심역량의 문제를 다루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체적인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정과를 중심으로

내용 체계 중 ‘가정생활’ 영역을 가정과의 입장과 문제로 가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논리적 구조와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에서 초·중등 연계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본다. 즉, 실제로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기술·가정과는 교육과정 개정 때 마다 강조되어 온 초·중등 연계를 어떻게 해석하여 왔으며, 이 부분에서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등의 가정과 입장에서 우선 초등 실과에서 가정과와 관련된 교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과와 초등 가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그 위상은 어떠한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 가정과 간의 상호 이해에 대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간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가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학술적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찰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가정과에서의 핵심역량이란 무엇이며,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란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본다. 교육에서 각 교과의 핵심역량의 총화는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될 것이며, 각 교과는 교과의 성격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특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은 전체와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이는 가정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정과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지와 같은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셋째, 위의 두 쟁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과의

새 교육과정에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의 방안을 살펴본다. 현 시점에서 이 논의는 매우 심도 있고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하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의 서술은 그 초기 단계로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찾고자 하나, 한편에서는 그 간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내재되어 있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룸으로써 이를 토대로 다음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전략을 모색해 본다고 하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되 초등 실과의 위상이나 논쟁들은 연구자의 학술적 경험의 축적에서 비롯된 서술적(敘述的)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II. 초등 실과와 중등 가정과의 관계

교육과정 개발에서 초·중등 연계는 교과 논리에 의한 필요성과 자발성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총론의 요구로 인해 시작된 면이 강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초·중등 연계란 무엇이며 타 교과와 달리 독특한 상황에 처한 가정과는 그간 어떠한 방식으로 초·중등 연계를 이루고자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는지, 내재된 연계는 무엇인지 밝혀 볼 필요가 있다.

1. 가정에서의 초·중등 연계성의 문제

교육과정 개발에서 초·중등 연계는 학습자의 발달을 고려하고 교과의 내용 구성과 조직의 원칙을 견고히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에서 초·중등 연계가 직접적으로 요구되고 적용된 것은 7차 교육과정기부터이다. 이 때 제기된 10개의 국민공통기본교과와 10년의 국민공통교육기간이라는 두 개념은 학습자가 공통교육

기간동안 각 교과마다 하나의 계통을 유지하면서 학습한 지식체계를 구조화하고 발전시켜나간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과정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 틀은 급기야 중등에 '기술·가정'이라는 기형적인 교과를 탄생시켰고, 학년급 개념으로의 접근에 따라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기술·가정교과는 교육과정 편제상 1개의 교과가 되어 6년의 교육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교육과정 형식상의 가정과 초·중등 연계는 2007개정, 2011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의 초·중등 연계는 여타 교과와는 다른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핵심은 초등에서 '실과'라는 교과로 시작된다는 것과 중등의 '기술·가정'을 하나의 통합된 교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실과가 곧 기술·가정과 다르며, 기술·가정도 실과가 아니기 때문에, 세 교과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교과 철학으로 인하여 교육과정상 성격과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등을 온전히 공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중등의 연계란 매우 형식적인 수밖에 없다. 그 형식성에 대한 이해는 초등 가정과가 처한 위상을 파악하는 가운데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

2. 초등 가정과의 위상

초등 가정과는 단독의 교과는 아니지만 실과 안에서 다루는 주제들의 일부는 가정과의 주제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실과는 개념적, 이론적으로나마 가정과의 주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들 간의 '통합'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모학문에 대한 논쟁도 등장하게 되었다.

1) 실과의 탄생 배경과 교과의 성격

'실과'는 1954년 4월, 초등학교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진 교과로서, 이전까지 사회생활과, 가사과 및 미술과 등에서 도화, 공작, 조리, 재봉, 가

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내용들 중 실용적인 내용들을 정선하여 통합, 단일화한 독립교과로 한 것이다.

이후 실과는 각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의 성격과 강조점, 내용들을 변화시키면서 그 교육적 가치를 달리하여 왔다. 초창기에는 농·공·상·수산업 등 생산적인 일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교과로서 실업교육의 성격을 갖기도 하였으나, 현대사회로 올수록 실과는 생활 수행능력과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력을 기르는 교과로서 교양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시대적으로 실과교과가 어떠한 성격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내용의 구성과 비중도 달라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무엇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실과교육에서 꾸준히 다루어왔던 내용들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살피게 되면 실과교과의 근본적 성격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2) 실과의 모학문과 통합에 대한 논쟁들

실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접근방법은 인간의 일상적 삶과 삶에서의 보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인간은 장구한 세월을 거쳐서 자신과 가족에 당면한 기본적 삶의 문제에 늘 주목하여 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타당한 방식에 대하여 공유하고 세대 간 혹은 주변으로 전수하여 왔다. 실과는 이와 같은 생활의 보편적 문제와 접근에 대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중 하나로서의 지식을 형성하고자한 것이다(Society for Research on Practical Arts Subject of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2011).

이렇게 본다면 실과가 교과로서 학문적 타당성을 갖고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철학과 내용, 접근방법에 대한 논리를 갖추는 등, 독자적이면서도 단일한 학문적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과의 탄생 당시에는 ‘실용적인 것을 모은 것’에 대한 철학을 갖춘 단일한 학문의 토대나 성격을 정립시키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한

그럴만한 학문적 관심이나 역량도 부족했다고 본다. 이후 실과 내용구성의 주제를 포함하는 각 학문의 발달 및 해당 전공자가 초등교사양성교육기관에서 실과를 연구하고 교육하게 되면서 실과의 학문적 근간을 모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가정학, 농생명과학, 기술학으로 여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모학문이란 용어는 사전에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모태가 되는 학문이라는 뜻일 것이다¹⁾. 현재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학문의 개념은 실과가 어떠한 단일 학문으로부터 그 논리와 연구방법을 빌어 교과로서 탄생된 것인가가 아니라, 현재 실과 내용의 근간이 되는 가장 강력하며 지배적인 학문이 무엇인가로 파악되고 있다.

다수의 모학문을 갖게 되는 모호함은 필연적으로 교과 논리를 위하여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가정학, 농생명과학, 기술학은 각자 실과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공통분모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통합의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 고민은 노력의 부족이든, 구조적 한계 때문이든 진전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가정학에 기반을 두고 실과를 해석하자니 ‘기술’적 접근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렵었고, 기술학에 기반을 둔 학자들은 실과에서의 기술의 범주는 ‘가정생활’로 한정하지 말고 산업사회로까지 확대해야 하며 기술학의 구조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과에서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적어도 기본적으로 가정학에서는 ‘기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술학에서는 기술의 범주와 장면을 ‘가정생활’속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와 같은 학문적 고민이 필요했으나 이러한 솔직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실과에서의 영역의 구분

중등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명칭에서도 물리적 병합임

1) 실과에서 모학문에 대한 논의는 Jeon(2004)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 인용한다.

2) 이러한 주장의 연구는 실과의 여러 연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통합적 접근을 위해 각 학문분야에서 교과의 성격에 대해 공동연구를 제안한 연구(Yoon,1997), 실과내용의 여타 교육활동으로의 통합 추진(Lee, 1998), 실과교과는 여러 교과의 지식과 기능을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체계에서 분류 조직하여 통합적인 관계와 질서를 발견해야 하며(Society for Research on Practical Arts Subject of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2001), 여러 교과의 통합의 구조나 통합의 독특한 지식체계에 대한 재개념화에 대한 결과물이 필요하다(Jeon, 1998)는 연구 등이 그 예이다. 이후의 유사한 주장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통합의 실재를 다른 구체적인 연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을 적극 강조하고 있으나, 실과는 그 탄생의 배경으로 인하여 겉으로는 통합의 철학을 강조하지만 내면적,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학문간 요구와 관점이 대립되어 병합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의 문제나 접근은 늘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거나 대학원 실과교육 전공에서의 교육적 훈련은 영역 간 불균형하게 이루어지는 등 왜곡된 해석이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다보니 실과 내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암묵적으로 관련학문 영역 간 불가침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합의하며 그 지분 찾기에 애쓰는 형국을 보인다.³⁾ 2011개정 실과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영역과 '기술의 세계'영역은 가정과와 기술과를 대표하면서 각자 별도로 개발되었다. 즉, 발명과 로봇 같은 새로운 교육주제가 실과에 왜 필요하여 등장하였는지의 논리는 교류되지 못하고, 기술학의 시류적 논리만 존재하였다. 또한 '가정생활' 중영역에서는 교육주제에 대한 방향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기술의 세계' 중영역에서는 교육의 대상을 강조하고 있는 등, 그 제시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중영역에서 축소된 단원의 성격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 확고해진다.

통합적 관점을 강조해왔던 실과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 그간 어떠한 실과에 강요된 통합적 접근에 대한 피로감으로부터 비롯되거나, 지향과 현상의 괴리와 한계를 인정하거나, 혹은 통합적 접근에 대한 위험부담, '실과'라는 독립된 학문에 요구되는 조건의 한계 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Jeon, 2011). 그러다보니 이제 실과는 암묵적인 합의와 일반적 인식에서 본격적으로 가정학과 기술학으로 대별하여⁴⁾ 그 학문적 기초를 탐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초·중등 연계의 의미와 내용 체계의 새로운 구조

실과에서 통합과 관련된 인식의 흐름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현상들은 가정과가 더 이상 실과 안에서 기술과 옆에서 그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교육과정 안에서도 자유롭게 초등 수준의 가정과교육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더욱 지지하고 강화시킨 것은 교육과정 개발에서 강조하고 요구하는 '초·중등 연계'이다. 그 간 실과와 기술·가정과에서는 초·중등 연계로 어떠한 방식을 견지했는지, 초·중등 연계란 어떠한 의미인지를 파악하면 왜 실과 내에서 이러한 변화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아울러 초·중등 연계에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지도 모색할 수 있다.

1) 초·중등 연계의 방식과 통합 논리의 실제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실과'와 '기술·가정'교과는 교육과정상 하나의 교과로 비춰지기 위해 그 연계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개발의 최소한의 전제로서는 '교육과정상 성격, 목표, 내용 등에서 같은 구성과 체제를 유지할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에서 성격, 목표, 내용을 통합한 형식으로 제공한 것은 당시 초·중등이 1개 교과 체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로서 한 교육과정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기술·가정교과를 묶어놓은 후의 현장의 혼란함과 더불어 교육과정 이해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전과 달리 실과에서는 '가족' 학습에 대한 새로운 논리가 필요해졌고, 가정교과의 식생활, 의생활과 같은 주제는 '생활기술' 영역에 포함됨으로 인해 '기술'의 관점에서만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하였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해의 어려움

3) 이에 대하여는 Jeon(2006)의 논문 '실과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나타난 실과교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4) 실과의 모호문으로 제기되었던 가정학, 농생명과학, 기술학의 구분을 볼 때, 농생명과학과 기술학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초·중등 연계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나, 이는 본 연구 주제의 성격상 논외로 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위 각주 3)에 제시한 논문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에 대한 비판과 교과 정체성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제시 방식에서의 새로운 전략이 등장하였다. 성격의 서술은 초·중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서술과 함께 문단을 나누어 초·중등, 기술과와 가정과를 분리 서술하도록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목표의 각 항은 내용영역을 중심으로 하위 목표 각 자체가 곧 가정과와 기술과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내용영역은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구분하여 구성함으로써 한 교과안에서 기술과와 가정과의 병합체제로 굳히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실과는 통합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를 상실하였으며,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그 간의 통합을 둘러싼 논의의 난맥상들은 일단락 짓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생명과학 영역의 심한 저항이 있었으나, 이후 실과에는 초등 가정과와 초등 기술과라는 표현도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었다.⁵⁾

초·중등 연계성의 확보가 곧 내용영역을 통일시키는 것인가, 실과가 중등 내용영역의 구분 체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실과가 학습자의 삶과 실생활에의 유용성을 중시하는 교과라고 할 때, 그리고 실과는 기술이나 가정전공 교사가 아닌 담임교사에 의해 다루어진다고 할 때, 기술과와 가정과 간의 학문적 영역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So et al., 2010)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중등 내용영역의 통일은 당시 교육과정 개발의 강력한 요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답이자 안전한 장치였다고 판단한다.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나, 실과에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별도의 문제제기 없이 오히려 ‘가정생활’(가정과)과 ‘기술의 세계’(기술과) 영역의 대별과 그에 대한 적응은 정착되어 갔다.

결국 교육과정 개발에서 강력하게 요구되었던 초·중등 연계는 1차 교육과정 때 실과를 만들었던 통합의 철학과 7차 교육과정 때 기술과와 가정과를 묶어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고자 했던 외부의 의도와는 달리, 실과와 기술·가정과 모두 가정과와 기술과의 양분된 병합의 체제로 정착 시키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2) 초·중등 연계의 내재적 의미

가정과에서 교육과정 형식에 따른 초·중등 연계 외에 내재적 연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나 구체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약하거나 외면되어 왔다. 게다가 교육과정 형식에 따른 초·중등 연계도 개발 주체의 점검과 확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학술적 논의로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가정과가 기술·가정교과로 묶이면서 오는 혼란과 불협화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초·중등의 연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학술적 관심은 소홀할 수밖에 없거나 부각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으로 본다.

초·중등의 연계의 의미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학년이 더해지면서 해당 교과의 성격과 목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개정 이후 실과(기술·가정)교과의 목표가 공통교과의 최종 학년에서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가정과에서의 초·중등 연계는 같은 성격과 목표를 유지하면서 목표가 구현되는 수준에 대한 논리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내용구성에서 어떠한 주제가 초·중등에 동일하게 등장·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내용의 구성과 조직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도록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 내용에서 초·중등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어느 주제가 학년의 진행에 따라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요소)의 범주가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가, 주제의 지도목표는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정교육학의 철학과 목표가 어떻게 초·중등, 각 학년 급

5) 실과가 통합을 지지하기 위한 논리를 상실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외부의 요구와 상황에 의함이다. 당시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기술·가정과의 교육과정상 분리를 위한 요구와 저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과정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실과는 중등을 위해 일견 양보하여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의 이분적 구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으로는 실과가 처했던 통합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었던 장치였다고 평가한다.

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도 주요 관점이다.

만약 실과와 기술·가정과의 성격과 구성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한 채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분석에 앞서 교과와 성격에 대한 해석이 수반된 분석의 틀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히 학습자의 발달단계의 특성, 가정과의 정체성과 타당성, 국가·사회적 요구를 통합적,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그 논리적 질서를 갖추도록 할 때 가정과의 초·중등 연계에 대한 내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3) 초·중등 연계의 새로운 구조 : 내용영역의 횡적 구도
하의 연계

7차 개정 이후 초·중등 하나의 교과 체제는 교육과정 개정마다 근본적 틀이 되었다. 2007개정을 앞두고 실과에서는 초·중등의 연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할지, 성격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해야 할지, 그간의 실과의 성격이 합의된 보편적 개념과 가치를 담고 있었던 것인지, 초·중등 연계의 성격과 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 만족시켜야 하는지 (Jeon, 2006)등과 같은 학술적 고민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실과와 기술·가정교과는 그 구성과 조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교과의 연계와는 그 속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내부적으로 안정된 구도인 두 교과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과에는 새로운 적응의 양식이 필요해졌다. 물론 당시 실과에서 연계에 대한 해석은 가정과와 기술과의 학문적 지식체계 보다는 이 체계 안에서 분야 및 영역 간 통합적 관계와 질서를 발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이는 2011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Jeon, 2012).

2011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을 보면 이미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등장한 내용체계에서의 이분법적 횡적 구도를 이전보다

좀 더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11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특히 실과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화의 초석을 놓고 있는 것으로서, 실과가 앞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변화와 논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Jeon, 2011).

그러다 보니 이제 실과와 기술·가정과의 초·중등 연계에는 새로운 문법과 질서가 필요해졌다고 본다. 그 논리는 실과에 실과 대신 가정과(가정학)와 기술과(기술학)가 표면적으로 대두됨을 시작으로 2011개정 교육과정을 지나면서 더욱 견고해진 것과 관련되어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교육과정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영역의 구분의 횡적 구도는 앞에서 다룬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포함하여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III. 교육과정에서 가정과가 제공해야 할
핵심역량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2011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는 실제로 교과를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이 성격에 명시되기도 하였다. 핵심역량이란 무엇이며, 교육과정 개발에서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 가정과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와 같은 논의는 다음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1. 핵심역량 중심 교과 교육과정 개발⁶⁾

1) 핵심역량의 개념 및 교육에서의 지향

핵심역량(key competence)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6) 이 부분의 서술에는 2013년 10월 4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방향 탐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Jeon(2013)이 발표한 ‘실과 교과 핵심역량 도출과 문서체제에의 적용방안’ 중 해당 내용의 일부를 재조직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로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한 핵심역량은 누구나 이루어야 할 기본적인고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능력을 의미한다(So et al., 2010). Lee(2014)는 핵심역량을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라고 보았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그 핵심역량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시민의식, 인성, 진로개발능력, 국제사회이해, 기초학습능력, 진로개척능력, 자기관리능력을 제시하고 있으며, Lee(2014)는 핵심역량 요소를 자기관리능력, 공동체 의식, 의사소통능력, 창의·융합사고능력, 정보처리능력, 심미적 감성능력으로 보았다.

2009개정 교육과정 고시 이후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교과 학습을 통한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반영하도록 요구되었고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으로 그 역량과 능력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교과의 성격, 목표, 영역별 성취기준에는 각 교과의 핵심역량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간의 교육과정 개발이 배워야 할 것이라는 지식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활용하고 새 지식의 창출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지향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총론 수준에서 제시되는 핵심역량은 국가 교육과정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 각 교과는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교과의 상황에 맞게 선택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가정과에서의 핵심역량이란 가정과 학습을 통해 학습자에게 길러지기를 기대하는 어떠한 능력일 것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떠한 형식이든 역사적으로 가정과 내에 존재하였고 요구되었기 때문에, 핵심역량은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가정과를 포함하여 교과마다 고유하게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지향적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를 통해 그 지향과 능력을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표면화시킴으로써 이를 다시 공문화할 수 있다.

2) 핵심역량 중심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발의 배경

2009개정 교육과정 이후부터 각 교과의 새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5개 교과 그룹으로 진행된⁷⁾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및 개발 지침에 대한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 사항인 창의와 배려, 인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교과를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실과(기술·가정) 교과에서도 교과를 통해 길러야 할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기초 연구를 통해 분명히 규명하고, 그 핵심역량이 실과(기술·가정)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미 이 때부터 실과(기술·가정)교과에서의 핵심역량 반영 방안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So et al., 2010)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내용' 개발 지침 중의 일부 내용과 핵심역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과를 통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역량(key competence), 핵심개념(key concept), 핵심과정(key process)등을 규명하고 이를 기본으로 내용을 선정한다.
- 교육내용을 통한 핵심역량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학년군의 말에 그 성취 기준과 수행 수준을 명료화하여 제시한다.
- 초등 실과의 경우, 학습 영역은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이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도록 통합적 형태로 제시한다.
- 중학교 기술·가정의 경우, 기술 영역과 가정 영역의 교육 내용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각 영역은 해당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제 혹은 문제 중심 등 다

7) 이 연구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전초적인 정책 연구였다. 연구 그룹을 총론, 기초교과(국어, 영어, 수학), 탐구교과(과학, 사회), 예체능교과(음악, 미술, 체육), 실과(기술·가정)진로교과(실과, 기술, 가정, 진로)의 다섯 그룹으로 구성하여, 각 팀의 팀장은 교육학 전공자로 하고, 각 교과 전문가 1인씩을 팀원으로 하여 진행하였는데,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이 향후에 이루어질 각론 개발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론에게 교과의 입장이나 특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총론과 각론간의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의도를 포함하였다.

Table 1. examples of key competence in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So at al., 2010)

key competence	subelement
self control	establishment of identity, good use of leisure
career development	career recognition, career exploration, career planning, vocation ethics
creativity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 tendency
problem-solving	practical problem solving, technical problem solving
information processing	information collecting, information analysing, information utilizing, information ethics, media utilizing
comprehension for international social culture	comprehension for our culture, comprehension for multi culture, enjoying culture, comprehension for international social culture
personal relation	others understanding and respect, complication management, formation of relationship, leadership
citizenships	community spirit, the law-abiding spirit, environmental awareness, sense of ethics, sense of ethics

양한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 중등 기술·가정의 경우, 기술학과 가정학 등 모학문의 논리 체계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실생활의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기술·가정교과 특유의 사고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다.

2011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교과목의 핵심역량이 추출·제시되었다.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2011)의 설문조사 결과, 총론에서 제시했던 핵심역량 중, 실과(기술·가정) 구성원들은 ‘진로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 ‘자기관리능력’의 순으로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과정 편성 시 강조해야 할 내용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가정 영역에서는 ‘건강가정과 웰빙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교육’, ‘일·가정 양립의 진로교육’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역량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실과(기술·가정)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1)’에서는 핵심역량이

선정된 배경을 밝히면서 실과(기술·가정)교과에서의 핵심역량은 교과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핵심역량은 가정과의 철학과 목표와 관계되고, 내용의 근간을 마련하며 수업의 목표 설정과 도달에 이르기까지, 또 타교과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의를 담게 될 것이므로 그 등장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성격에 명시된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Table 2>를 보면 초·중등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역량을 ‘진로개발능력’과 ‘실천적 자기관리능력’으로 대별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실과와 가정과와 기술과의 핵심역량 제시와는 하위 체계가 잘 맞지 않는다. 또한 문제해결과 실천적 문제해결, 자기관리능력과 실천적 자기관리 능력이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있기도 하여 분명한 용어의 정의와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개발 기간의 한계로 인하여 핵

Table 2. specified key competence; changed 2011 curriculum in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ommon	elementary practical course	secondary technology·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secondary technology·home economics (technology)
key compe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eer development • practical self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 control • creativity • problem-solving • career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lf control • practical problem-solving • creativity • personal relation • career development • communicative compe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eativity • problem-solving • information processing • self control

심역량은 성격에만 명시되었을 뿐, 핵심역량을 어떻게 목표와 내용, 방법으로 연결할 것인가 등의 논의와 그 결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다고 평가한다.

2. 핵심역량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건과 과제⁸⁾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은 교과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인간상 및 국가·사회적 요구 등에 맞추어 그 의미가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심역량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을 개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나 원칙, 혹은 과제에 대한 고려가 우선 필요하다.

1) 목표 중심, 지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 찾기

핵심역량 중심의 가정과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과 주제 중심에서 벗어나 무엇을 위하여 가르칠 것인가라는 목표 중심, 지향 중심의 패러다임의 변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내용’에서 ‘능력’ 중심으로의 변환은 그 간 볼 수 있었던 학문병합적, 주제나열식 중심 개발이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루는 내용을 통하여 길러야 할 역량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가정과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학문중심 사고의 틀은 좀 더 유연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서 내용(주제)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개발 방식은 궁극적으로 가정과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역량을 통해 가정과의 본질은 물론, 이 시대 가정과교육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통합적 안목과 학문적 성찰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과의 성격이나 본질과 부합되는 핵심역량의 선정

가정과의 핵심역량은 교과와 성격이나 본질과 부합되고 목표와 일치하여야 하며, 제시되는 교육내용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연관되어야 한다.

가정과는 역사적으로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다루면서 의식주와 같은 본질적이며 고정적인 생활의 영역과 더불어 각 시대마다 요구되어 왔던 다양한 생활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왔다. 따라서 가정과에서의 핵심역량은 우선 가정과의 성격과 본질을 일맥상통하는 고유의 역량이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를 중심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격, 목표, 내용은 핵심역량과 일관된 관계와 질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3) 가정과만의 특화된 핵심역량 개발

가정과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가정과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여 주지교과와의 균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 교육이 제시하고 있는 지향과는 달리 교과 편제 등의 구성과 운영, 경쟁 중심의 교육문화 현상을 보면, 결과적으로 각 교과와 핵심역량조차 비교 우위나 강조가 달리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역량간의 비교우위나 강조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과는 역설적이지만, 가정과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은 이러한 교육현실과 상황에서 다른 교과와 차별되면서도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으로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더욱 그 독자성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자기관리능력’ 뿐 아니라 세부적으로 ‘자원과 환경관리’의 역량이나 ‘생애설계’ 역량을 포함하는 것도 타 교과에서 접근할 수 없는 가정과의 고유한 핵심역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8) 다음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준비는 각 교과마다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등의 실과와 중등의 기술·가정과는 핵심역량과 관련해서 같은 논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2013년 11월 한국실과교육연구회에서 Jeon(2013)이 수행한 기초강연 내용 중의 일부를 가정과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제시한다.

4) 초등 실과와 중등 기술과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 간의 관계 해석 및 정립

교육과정 개발원칙에 따라 실과와 기술·가정과가 하나의 교과라는 여러 장치들을 활용하는데 핵심역량의 제시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초·중등 연계선상에서 핵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정과가 실과와 기술과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정과는 실과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을 어떠한 입장에서 연계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초·중등 가정과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력을 갖추고 아울러 기술과와 공유하는 같은 핵심역량이라고 하더라도(예, 문제해결력, 진로개발능력) 기술과와 달리 이에 대한 가정과만의 고유한 접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색하여야 한다.

5) 핵심역량의 추출 방식과 제시 형식을 고려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의 제시방식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구성 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본다. '가정생활', '기술의 세계' 두 내용 영역과 영역 중심의 목표 제시 방식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고려한다면, 가정과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의 추출과 제시는 '초·중등 연계 고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에서 '가정생활'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술의 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병합하여 제시할 것인지, 두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만족되는 핵심역량을 제시할 것인지에 따라 초·중등 가정과에서 연계하여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핵심역량의 추출과 제시방식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은 단순히 성격과 목표에만 명시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용체계에도 반영될 것이므로 이를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IV. 초·중등 연계, 핵심역량 중심의 가정과 교육과정 구현 방안

'초·중등 연계'와 '핵심역량 중심'을 강조하는 다음 교육과정 개발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식이든 문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며, 그 방식은 더욱 강조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다음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가정과에 필요한 거시적인 논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새 교육과정에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의 방안과 제안점을 모색해 본다.

1. 초·중등 가정과의 학문적 소통

그간 초·중등 가정과가 함께 교육과정과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온 경우는 많지 않다. 실과는 아동과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아동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 의식주 등 삶의 기본적 수단을 통해 가정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일감들의 속성과 그 관계들, 일의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통합적 관점 하에서도 가정과교육과 가정학으로 그 학문적 기초를 탐색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과 중등에서 서로의 가정과교육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는 반드시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초·중등의 접근 모두 기본적으로 가정과교육으로서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에서 가정과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어떻게 구조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가정과의 학습대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학습자라는 관점에서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초·중등의 가정과교육은 서로의 학문적 관심과 고민을 공유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초·중등의 가정과교육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학술적 논의 및 소통, 연구의 축적은 가정과의

다음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및 개발 실제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초·중등 연계의 구조적 장치로서의 대안 : 교과 명칭의 통일

실과와 기술·가정교과의 관계를 하나의 교과로서 어떻게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는 7차 교육과정부터 있어왔으나,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통합의 입장을 견지하는 실과와 병합을 주장하는 기술·가정과 사이에서 명쾌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2011개정이 되면서 실과에서도 가정/기술로 이분화가 정착되어가는 분위기는 더 이상 통합에 대한 설득력을 갖추기 어려워졌고, 초·중등 연계를 강조할수록 실과교과 내 가정생활 영역과 기술의 세계 영역 간의 소통보다는 같은 영역 내 초·중등의 소통이 훨씬 수월해지고 타당해져 가는 양상이다.

그러다보니 한 교과라는 틀에서 초·중등 교과명칭의 상이함이 자연스럽게 다시금 쟁점화되어 가고 있다. 그간 초·중등 교과명칭의 차이는 연계성 추구의 노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교과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과 내에서도 교과명칭이 교과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 주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도 하여 현행대로 명칭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분명 주도적이거나 우세한 주장은 아니다. 다만 ‘다른 그 어떤 것’에 대한 명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과명칭의 변경을 자발적, 주도적으로 이를 구성체가 성립되기 힘들어 실과와 기술과, 가정과의 구성원들 모두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루어오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과교과의 명칭에 대한 문제점은 실과교과 안에서도 그간 본격적 또는 부분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Ryu(2001)와 Kim(2004)은 실과명칭변경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논리적 전개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약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교과명칭의 통일은 ‘초·중등 연계’의 구조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명칭을 통일하게 되면 교과의 정체성이 분명해

지고 교과의 위상이나 교과내용의 연계성, 일관성을 추구하는데도 보다 분명한 철학을 세울 수 있다. 다만, ‘실과’냐, ‘기술·가정(수정안: 가정·기술)’이나, 혹은 제 3의 명칭이냐의 문제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인데, 이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각 대안의 모든 항목을 고려한 장단점을 분석해보는 합리적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떠한 것이 더 타당한 것인가를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3.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의 노력

다음 교육과정 개발이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발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가정과 구성원들은 핵심역량 중심 접근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의 개발 방식에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정과의 핵심역량을 무엇을 할 것인지, 이를 드러낼 수 있기 위한 구성은 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해 교과의 본질, 학습자의 특성, 사회적 요구 등을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편,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접근은 학생들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 과정이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교육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즉 교육내용을 최소화하여 학교수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되, 핵심 개념과 과정을 다루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 학년군의 최종단계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것을 수행 기준이나 성취기준 형태로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Jeon, 2012).

따라서 핵심역량은 가정과의 교육과정 성격에서 뿐만 아니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타 교과와는 차별적인 핵심역량의 교육적 실천을 위해서는 핵심역량의 독자적 차별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성취기준 또한 핵심역량과 직접 관련되도록 하고, 교과서는 어떠한 주제의 단원이라도 교과의 핵심역량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구성으로 집필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수업은 그 지향점에서 핵심역량의 의미를 담아야 할 것이다.

4. 생활교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며 이를 어필할 수 있는 전략 모색

가정과의 성격과 범주를 주지교과나 예체능교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생활교과로 규정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가정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 그 자체를 다루면서 인간의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항구불변의 조건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이들의 현재 및 미래의 생활능력을 길러주며, 이를 실천적 체험을 통해 강조하는 본질적인 생활교과이다. 따라서 교육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학습자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도 매우 필수적인 교육적 접근이다. 그러므로 가정과의 새 교육과정에는 생활교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기 위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미래의 생활인으로 길러주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보다 필수적인 학습요소들을 정선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 내용선정이나 접근 방식은 단순히 학습자의 흥미만을 고려한다든지, 하위학문별 지식 또는 내용요소를 강조하며 귀납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어느 요소든 생활이라는 용어만 첨부하여 등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Jeon, 2005).

이러한 의미에서 새 교육과정에서는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방법적이고 자율적인 사유 활동이 부가되는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족', '일', '의식주', '생활자원', '환경', '소비와 관리', '복지', '돌봄'과 같은 개념들은 다른 교과와도 차별되는, 생활교과로서의 가정과가 전개할 수 있는 고유의 주제이자 접근방법들이다. 또한 가정과는 인간(아동, 청소년)이 인간(자신, 가족, 친구)과 사물(의식주, 자원), 환경(자연생태)과 어떻게 올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일, 소비, 관리, 돌봄, 배려, 복지), 이를 위한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진로, 생

애설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화와 조건은 무엇인지(저출산·고령화, 녹색성장, 글로벌 다문화사회 등)에 대한 총체적 접근으로서 그 준비와 역량을 키워주는 교과라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새 교육과정에는 어떠한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의 관점에서 목표 및 다루는 내용간의 관련성을 제시하게 되면, 이는 생활교과로서의 가정과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교육과정에는 가정과의 특성과 자부심을 외부적으로 어떻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와 같은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즉,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에는 가정과의 철학과 본질이 담겨져 있을 것이나, 이를 드러내고 강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시대·사회적 요구와 부합되는 부분을 적극 강조한다든가, 내용체계에는 가정과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기 쉽고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5.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전개방식에 대한 일 예시

핵심역량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건과 과제, 구체적인 구현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내용체계 전개방식의 모델을 일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차원이 아니라 연구의 전체 논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내용체계만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그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고려한 내용구성의 가정 및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내용체계의 예시는 <Table 3>과 같다.

- 초·중등 가정과는 '가정생활' 내용체계로서 동일한 구성을 취한다.
- 핵심개념과 핵심역량은 중영역 수준에서 제시하며 각 중영역은 핵심개념 및 핵심역량으로의 접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식으로 제시한다.
- 가정과의 핵심개념은 자기관리, 가족, 일, 의식주, 자원

Table 3. examples about content of education in elementary – secondary home economics

large categoric	middle categoric			main idea(content) and approaching	educational demand
	name	key concept	key competence		
family life	A: doing ones own self control	self control	· self control	A-1: my life and my competence A-2: plan and practice in life A-3: controlling confliction and stress A-4: explore and utilize useful information in life	cultivation of character
	B: life of care and share, making good relationship	family	· interpersonal relations · life planning	B-1: Things that can grow my own and development B-2: family; dissimilar dem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3: care those people, have interest B-4: making good relationship and maintaining	cultivation of character, welfare-service, happiness, preparation for low-birth and aging
	C: my future throughout from work experience	work	· career developing · life planning	C-1: my talent and aptitude from diverse work experience C-2: diverse job, importance about job and work C-3: compatibility of work-family life C-4: life planning	career, gender equality, preparation for low-birth and aging
	D: methods of life and lifestyle	the necessities of life	· self control, · problem -solving, · creativity	D-1: health, safety, pleasure in meals D-2: beautiful and attractive my appearance D-3: clean and functional house space decoration D-4: health life and my lifestyle	health, safety, originality, design
	E: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Living	resources and environment	· problem -solving, · managing environment and resources · citizenships	E-1: managing my daily supplies E-2: managing time and money E-3: preparing resources and choice, consumption, disuse E-4: balance and care, action for endless life	consumer economy, green growth, Sustainable Living, environment
	F: enjoying our culture in good ways	living culture	· comprehension for international social culture	F-1: superiority of our traditional meals F-2: clothing of practical and decoration F-3: environmental friendly hosing culture F-4: living culture in global comprehension for multi cultural age	global multi culture, korean wave living culture

과 환경, 생활문화로 한다.

- 가정과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환경과 자원관리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생애설계(진로개발)능력으로 한다. 이 외 부가적으로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 문화이해능력을 고려할 수 있다.
- 소영역은 핵심개념을 이해하고 핵심역량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과 접근방법을 동시에 표현한 통합적 형태로 제시한다.
- 중영역과 소영역 간에는 코드로 체계화하여 구성의 이해를 돕는다.
- 초·중등 하나의 교육내용 체계 안에서 초등과 중등의

구체적인 내용전개 및 그 수준, 범주, 비중, 강조점 등은 별도로 제시되는 학년별 내용이나 성취기준에 별도 형식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 국가·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교육적 요구나 가치를 핵심역량과 함께 각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교육내용 구성과 전개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V. 맺음말

이 글은 새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초·중등 가정과가

함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자 시도한 것이다. 특히 '초·중등연계'나 '핵심역량 중심'이라는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주어진 조건에 대하여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은 초·중등 연계에 대한 바탕으로 했을 때의 초등 가정과가 처해있는 현실과 과제, 그리고 가정과의 본질과 지향으로서의 핵심역량이 주는 의미와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와 그 전략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초·중등 가정과의 학문적 소통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이 글에서 바라는 것은 가정과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신뢰성이며, 국가 사회가 가정과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면과 현실에, 우리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진정한 교육적 요구에 한결같이 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과 태도이다.

참고문헌

- Kim, Y. I. (2004). A Study on the priority order of practical arts education program model development at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0(1), 173-191.
- Ryu, C. S. (2001). Future-oriented review on rename of practical arts subject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s Practical Arts Education*. 14(4), 1-7.
- So, K. H., Choi, D. S., Jeon, S. K., Choi, Y. H. & Lee, S. J. (2010). Study on directions to improve and guidelines taken for 2009 curriculum revision of the practical arts subject -Part for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areer and vocation, vocational subject of vocational high school-, 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0-5.
- Yoon, I. K. (1997). Direction of revision on curriculum of practical arts in elementary school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Proceedings of 1997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pp.11-18)
- Lee, K. W. (2014). 교과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진 합동 워크샵 자료. 교육부.
- Lee, et al (2014a).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공통지침 탐색 (1-59).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4-9.
- _____ (2014b).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2015 교육과정 개정 방향 탐색을 위한 정책 포럼.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료 ORM 2014-61.
- Lee, M. K. (1998). Exploring a new paradigm for elementary practical art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1(1), 1-12.
- Society for Research on Practical Arts Subject of National Education University (2011). *Understanding of practical arts education*. Paju: Yangseowon.
- Jeon, S. K. (1997). A study on curriculum revising orient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9(1), 39-52.
- _____ (2004). Analysis and evaluation of curriculum content organization of practical arts subject : The viewpoint and issue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7(4), 21-41.
- _____ (2005). Issues and directions to improve of curriculum revising orient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Collection of Treatises of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42(1). 55-75.
- _____ (2006).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nature and phenomenon of practical art subject presented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ing of practical art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9(2). 195-218.
- _____ (2011). Discussion of a proposal and background on curriculum revising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Proceedings of forum 2011 curriculum revising of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_____ Evaluation.
 _____ (2012). The critical reflection and assignment for 2011 practical arts curriculum revis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5(2), 103-128.
 _____ (2013a). Way to reflect and deduction of the key competence of practical arts subject.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information-
Proceedings of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_____ (2013b). Development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future practical art curriculum. *Proceedings of 2013 The Society of Practical Arts Educati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2011). Proposal of

_____ taken for 2009 curriculum revision of th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subject.
 _____ (2012).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chievement standards and achievement levels of practical arts subject based on amended curriculum in 2009,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research paper CRC 2012-7
 _____ (2013). Search for direction of national curriculum future-preparing -Technology·home economics(include practical arts, informati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a research paper CRC 2013-26.

<국문요약>

이 연구는 ‘초중등 연계’와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두 쟁점을 바탕으로 실과(기술·가정)교과의 다음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논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의 입장에서 초·중등 연계란 어떤 의미인지,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초등과 중등에 나타난 전략을 통해 내재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 연계의 의미와 방식, 가정과에서의 연계의 문제, 초등 가정과의 위상, 초·중등 연계의 새로운 논리 등을 검토한다.

둘째, 가정과에서의 핵심역량이란 무엇이며,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은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핵심역량 중심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의미와 핵심역량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건과 과제 등을 검토한다.

셋째, 위의 두 쟁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과의 차기 교육과정 개발에 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초·중등 가정과의 학문적 소통, 교과명칭의 통일,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교과를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 등을 검토하고, 그 일 예를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초·중등 가정과의 소통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1월 04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2월 11일